CONTENTS

대청호 소식
2020 3+4 vol.122

2 이사장 취임사

4 19차 정기총회 소식

8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67 ——— 최왕진 무주네트워크 대표

12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4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16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 ——— 1구간 두메마을

22 대청호 직유입 하천과 소유역운동 2

28 정책 & 이슈

32 대청호 뉴스&뉴스

36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22

발행일 2020. 3. 31.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마을의 한 풍경.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봄은 옵니다. 마을에 피어있는 산수유꽃과 가지에 앉아 있는 직박구리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하고 작은 일상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곧 그렇게 되겠지요.

생명력 넘치는 대청호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대 이사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함께 대청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500만 시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제19차 정기총회를 통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대 이사장을 맡게 된 최병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예방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의 위대한 문명들은 모두 큰 물줄기를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물 없이는 인류의 문명 건설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주민들은 유장한 금강 천리 물줄기를 따라 찬란한 금강 문화를 일구어왔습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0년에는 금강 수계의 대청호가 완공되어 안정된 수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주민들의 소중한 상수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청호는 상수원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전과 충북의 경계를 가로질러 건설된 대청호는 주민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청호는 여러 산들과 골짜기를 품어 안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해왔습니다. 봄에는 화사한 벚꽃을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을 담아내면서 팍팍한 일상을 쉬어가게 하는 안식처로서의 역할도 해 왔습니다. 명경지수(明鏡止水)라는 말이 있듯이 맑고 잔잔한 물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는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며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소중한 대청호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현상과 대청호 및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에서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끊이지 않아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명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근원인 물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적 욕망이 한몫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고, 수많은 지천의 물들이 합수하여 아름답고도 웅장한 대청호로 모여듭니다. 대청호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를 젖줄로 삼아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대청호를 지켜나가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후세대를 위해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대청호가 되도록 운동본부 가족들 및 각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천가능한 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생명력이 살아 넘치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대청호가 되도록 대청호유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위한 값진 자리

2020년 19차 정기총회 성료

지난 1월 31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이 시끌벅적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19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구성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퍼지기 시작한 즈음이라서 걱정이 많았음에도 대청호 유역 의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천안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대전시 등 각 지역에서, 마을에서 활동을 해온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 담소를 나누며 살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에서 준비한 컵과일이 진열되었고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정기총회 시작을 알리자 상당히 넓은 행사장이 회원들로 메워졌다. 먼저, 충북 영동의 레인보우섹소폰동호회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레인보우섹소폰동호회는 영동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열리는 환경음악회에도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축하공연에 이어서 2019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

이어서 정기총회 1부 기념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부 기념행사는 대전YMCA 김종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덕성 이사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금강, 대청호를 맑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일구어왔다. 대청호보전운동을 향한 깊은 마음과 실천력으로 멀리서 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격려하였다. 이사장 인사에 이어 참석한 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대청호 지킴이상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대청호 지킴이상은 각 분야에서 대청호보전을 위해 크고 작은 실천력을 보여주어 주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여 드리는 상이다. 올해 대청호 지킴이상은 기관부문에서 옥천군 환경과 천기석 수계관리팀장, 영동군 환경과 신미자 수계관리팀장, K-water 금강본부 수질검사센터 이종수 대리가 수상하였다. 주민부문에서는 대전 이경식 하천감시단, 옥천 유영규 하천감시단, 전북 무주군 하장백마을 나건채 이장, 영동 박완천 하천감시단, 금산 추부면 성당리 차길중 이장이 수상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부문에서는 KT&G 상상유니브 봉사동아리가 수상하였고, 단체활동가 부분에서는 영동네트워크 강선경 팀장과 이순덕 4기 대청호 해설사가 수상하였다.

대청호 지킴이상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대청호 체험 물사랑환경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대전동명초등학교와 신탄진용정초등학교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새해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진지한 시간

훈훈한 시상식으로 1부 기념행사가 마무리된 후 이어서 2부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정기총회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오덕성 이사장이 진행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인 김유선 회원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천안아산네트워크 한유정 회원이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이건희 사무처장으로부터 부터 그 동안의 총회준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19년 감사보고 승인, 2019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 정관개정안 승인, 임원선출, 2020년 사업 및 재정계획안 심의 및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의안 1호 2019년 감사보고 승인은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의안 2호의 2019년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의 건은 이건희 사무처장이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하였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 의안 3호 정관개정안에 대해 K-water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건으로 K-water금강리본부장이 K-water금강물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전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의안 4호 임원선출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어 신임 이사장으로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이 선출되었다. 이사장 이외에도 부이사장으로 이범우 K-water 금강물관리본부장과 김종원 대전네트워크 대표가 선출되었다. 감사로는 전숙자 청주그린리더협의회장과 한근희 회계사가 선출되었다. 임원선출 안건이 통과된 후 신임 임원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의안 5호인 2020년 사업 및 재정계획안 심의 건은 사무처, 네트워크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모든 안건을 심의를 마쳤다.

뜻 깊은 이취임식의 시간

정기총회 안건심의가 마무리된 후 퇴임하는 오덕성 전 이사장과 새로 선출된 최병욱 이사장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취임식은 오덕성 전 이사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전달, 신임 최병욱 이사장(한밭대학교 총장)의 취임사로 진행되었다.

오덕성 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충남대학교 총장에서 퇴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단체가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은 열정적으로 활동한 회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임사에 이어 최병욱 이사장이 오덕성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신임 최병욱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며 앞으로 대청호 상·하류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조성하는데 이사장으로서 힘을 기울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두 분께 아낌없는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나눈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다짐은 곧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될 것이며,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기총회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법. 대청호보전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회원들의 약속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각자의 영역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열심히 움직이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반딧불의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왕진 무주네트워크 대표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사람이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북 무주군에서 대청호 보전운동을 이끌고 계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최왕진(68)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월 말 무주군 부남면에서 최왕진 대표를 만났다.

도소마을 토박이로 살아온 이야기

최왕진 대표는 현재 살고 있는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도소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마을에서 자라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어디로 이사를 간 적도 나가 본 적도 없다고 하니 말 그대로 도소마을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느 농촌마을처럼 예전에는 마을 가구수가 60호 가까이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32호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최왕진 대표는 형 2명, 누나 2명 등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호강하면서 자랐다고 한다. 집이 부유해서 라기 보다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큰 형과의 나이 차이가 28세나 나는 늦둥이 중에서도 대단한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고 한다. 부남면사무소 직원이었던 큰 형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부남초등학교까지 2Km의 거리를 막냇동생을 업어서 등교시켰다고 하니 막내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셨던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형과 누나들과의 추억이 많았는데 지금은 둘째형을 제외하고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며 가슴 아파 하였다.

최왕진 대표는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농사를 하면서 알게 된 단체가 4-H본부이다. 농사는 주로 인삼 재배와 한우 사육 등 2가지를 하였는데 80년대에 전국의 농민들을 울리고 목숨까지 끊게 했으며 농가경제를 골병들게 한 이른바 전경환의 '소파동'으로 소 값이 폭락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왕진 대표는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로 살았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한다. 아무튼 그 때 진 빚을 12년간 고생해서 갚았다. 지금도 인삼농사를 조금 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사에서도 졸업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왕진 대표는 그동안 마을이장을 12년간 맡았는데 올해부터 3년간 다시 마을 이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농촌지도자 부남면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이장을 맡게 되면서 다시금 마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무주군4-H본부 및 무주네트워크 대표를 맡다.

늘 인자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최왕진 대표는 2014년에 ㈔무주군4-H본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H본부는 4-H운동을 하는 단체로 4-H는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 4-H운동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 1945년 해방직후 낙후된 농촌의 부흥과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한다.

무주군4-H본부는 이러한 4-H의 정신을 표방하는 봉사단체로 현재 156명의 회원이 있다.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정화활동, 불우이웃 돕기,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무주군4-H본부의 여러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장으로 추대가 되었고 올해까지 7년이 되었다. 그 시기 동안 무주군4-H본부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게 되었고 회장으로서 무주네트워크 대표로 선출되어 무주에서 대청호 보전활동을 이끌고 있다.

주민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최왕진 대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무주군4-H본부 회원들도 환경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것을 보면 설득하는 등 회원들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무주네트워크는 그동안 하천주변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7~8개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 환경교육, 천연비누 등 천연제품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수목식재, 외래식물 제거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최왕진 대표는 사업에 함께하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나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보람이 크다”고 하며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렇지만 그동안 무주네트워크 대표를 맡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주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힘들기도 했던 최왕진 대표는 어떤 곳이든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도 잘 극복하고 구성원 간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최왕진 대표는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던 마을 이장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반딧불의 청정한 무주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올해의 활동에 대해서 최왕진 대표는 올해는 무주에서 가장 큰 하천인 남대천과 금강으로 직유입되는 가당천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의 사업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더 많은 마을들과의 환경보전 활동과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왕진 대표는 사람들이 무주하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반딧불이라고 하면서 청정한 무주를 지키고 만들어 가는데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탤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주네트워크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더 단합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 무주네트워크가 참여단체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해요.”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정종운 이장 인터뷰

대전에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로 향하는 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대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였고, 월전리는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장님을 찾아뵌다는 일 자체가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믿었다.

인터뷰를 위해 먼저 이장님과 통화했다. 대안을 찾았다. 가까이 마주 앉아 정담을 나누는 일은 전화로 하고, 글에 필요한 사진만 촬영하기로 했다. 망원 렌즈를 준비했다. 월전리에 도착하여 코로나 19 상황을 서로 이해하며 이장님과 거리를 두고 인사를 나눴다. 월전리를 월전리답게 이끌고 있는 이장님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종운(57세) 이장이다.

이장님을 뵌 첫날, ‘월전리 마을 자랑 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장님은 어떻게든 마을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너무나 열정적이셨다. 더구나 동행한 사람은 필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최장문 역사교사였으니 월전리 구즌 벼루에 엮인 백제 성왕의 슬픈 사연을 현장답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장님은 마을에 구전되는 역사를 서슴없이 설파하셨다. 최장문 역사 교사는 백제 성왕의 참수 현장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 월전리는 마을 자랑 비가 말하듯 슬픈 전설과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는 2018년과 2019년도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한 마을이다. 이 사업에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은 물론 마을 주변에 쓰레기 하나가 없을 정도였다.

며칠 후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휴~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구저쩌구 해두 전화로 대화 나누는 건 좀 그런 거 같튜. 시간 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해유.”

지난 3월 17일 오전, 다시 일정을 잡아 월전리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을 뵈었다. 마을 회관은 ‘폐쇄’ 상태였다. 하루 50~60분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공간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터라 썰렁하기만 했다.

정종운 이장님께 자기 소개를 부탁했다.

“아이구, 소개랄 게 뭐 있나유.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유.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 고마울 뿐이지유. 80세가 넘으신 분이 대부분인디 저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쥬.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자랐다는 게 자랑이지유. 뭐, 특별한 것은 없어유.”

정 이장님은 자기 소개를 마을 어르신들 덕택으로 치환하고 월전리 자랑을 이어가셨다.

"우리 마을은 어르신들의 협조가 대단하세요. 마을 쓰레기 청소를 할 때나 공동체의 일손이 필요할 때나 연세가 높으신 데도 나오셔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니까 마을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월전리 마을의 단결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건이 있었다. 1997년에 옥천읍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과 사격장 이전을 둘러싸고 월전리 주민들과 군 및 군부대 측과의 갈등이 진행됐다. 이때 월전리 주민들이 총단결하여 문제 해결에 나선 끝에 이전 문제가 백지화됨으로써 마을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동네를 흐르는 서화천 물이 깊지 않고 깨끗해서 여름에 놀기가 좋고 특히 마을 인심이 좋아 타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마을이 월전리다.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기에 지난 1998년에는 마을 회관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충북 지역 최초로 치매 안심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치매 관련 더 이상 나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게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정 이장의 평가다. 2018년에는 한방힐링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월전리 주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걷고 운동하기에 좋은 시설로 전환시켜 힐링의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정 이장은 인심 좋고 경치도 좋은 월전리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며 필자를 안내했다. 산 중턱에 자리잡은 '찬샘'이라고 하는 공간이었다. 옛날에 에어컨 선풍기가 없을 때, 몸에 땀띠가 나면 찬샘에서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한다. 수질도 좋아 식수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공동 개발을 해서 식수로 공급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성왕교 인근 월전리 자랑비에 새겨 있는 마을 자랑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월전리는(月田里)는 다리골(月谷)과 군전(軍田)으로 서화천(西華川)의 맑은 물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사진바위와 마성산(馬城山) 식장산(食藏山)의 푸르름이 마을을 한층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으며 용(龍)이 하늘에 오르려다 바위가 되었다는 용바위(龍石)와 남자의 씩씩한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장군대좌(將軍對座) 길지(吉地)는 부락의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성왕(聖王)교를 건너면 백제(百濟)의 죽은 병사를 염(殮葬)을 해서 가졌다는 염쟁이(殮葬)가 있고 앞산의 관산성(管山城)과 뒷산의 할미성(老姑城)은 삼국(三國)의 국경(國境)임을 증명하고 말무덤과 구진벼루는 백제성왕(百濟聖王)의 슬픈 사연을 말해주고 있으며, 구진벼루 옆의 성왕유적비(聖王遺跡碑)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설과 문화적 유적으로 둘러싸인 자랑스러운 마을답게 오늘에 사는 우리는 이 문화 유산을 보전함은 물론 이를 널리 소개하고 바르게 생활하여 더욱 자랑스러운 마을로 가꾸자는 우리의 의지를 여기 자랑 비에 새깁니다.

- 1991년 10월 26일 군서면 월전리 주민 일동

글 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대청호 해설사가 들려주는 오백리길 이야기

1구간 두메마을
『오래된 데크길 안전진단 필요』

대청호 둘레길 탐방 모습

화사한 햇살이 봄을 가져다가 대청호 언저리에 뿌려 놓았다. 계절은 어김없이 약속을 지킨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품을 파고들지만 이내 그 바람도 가쁜 숨을 내 쉬며 나를 따른다. 오늘 걷는 길은 오백리길 중에서 1구간에 속한 삼정동에서 부터 이현동 까지 약 5km의 대청호반을 따라 걷는 구간이다. 함께 동행해주시는 해설사님들과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길을 나선다. 차를 타고 오며가며 눈으로만 둘러보았던 길을 오늘 걷는다는 잔잔한 흥분이 나를 들뜨게 한다.

대청호 수변데크길

오늘 걷게 되는 길이 대청호를 끼고 걷는 최고의 길이기도 하고 중간 중간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과 호반을 따라 걷기 좋게 만들어진 데크길이 아주 좋은 코스이기도 하다. 호수를 건너온 바람이 시원하게 반갑게 맞아준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걸음 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정겹다. 지금 대청호는 만수위에 가까운 저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걷는 길 바로 옆에서 바람과 함께 노는 물결이 아름답기만 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물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물을 바로 옆에 품고 사는 것에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 하였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혼자 생각을 해 본다. 만수위가 가까우니 물가로 떠도는 쓰레기들도 가끔 보이고 쓰러진 나무며 흘러드는 도랑물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가끔 눈에 뜨인다.

삼정동 마을 유래비

삼정동 이정표

아름다운 대청호 둘레길을 걸으며 잘 만들어진 데크길과 마을을 둘러보며 과연 아름답기만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설치하는 데에는 무척 익숙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생각이 짧은 듯하다. 오늘 돌아보는 이 길도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삼정동 출발지에서 본 마을 유래비의 소홀한 관리가 출발할 때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돈 들여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삼정동 입구 이정표 옆에 마을 유래비가 함께 있다면 참 보기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에 의해서 노력과 돈을 들여 만들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 걷는 길은 대청호 오백리길 중에 1구간 두메마을 길이다. 그중에 2코스인 삼정동 입구에서 부터 이현동 까지 이어지는 호반을 따라 걷는 길이다.

때론 아스팔트길을 걷기도 하고 곧 이어지는 데크길을 걷기도 하며 이현동까지 간다. 지나는 길에 몇 개의 마을이 있다 먼저 만나는 덕골이 있고 갈전동 마을이 있고 이현동 마을이 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마을들이라 고즈넉하고 조용하게 생각 되는 시골 마을 들이다. 너무나 조용하여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단점이 이라면 단점이겠다. 군데군데 끊어진 데크길이 있고 오래되어 망가진 곳들이 눈에 뜨인다. 구간 별로 데크길 관리를 마을에 맞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별도 관리하는 곳을 통하여 할 것이라면 마을에 그 관리를 넘겨주어 활기찬 마을로 만들고 자기마을을 소중하게 가꾸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

망가진 전망대

들이 찾도록 하는 것도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데크길을 가꾸면서 그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함께 치우도록 한다면 더 깨끗한 걷기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제일 먼저 덕골에 도착을 하였다. 이곳에는 비점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생태습지 공원이 있다. 바로 옆에 작은 주차장도 있어서 시간 내어 들러 가족들과 쉬어가는 곳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이곳을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대청호해설사를 배치하여 마을이야기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내용은 마을 이야기와 이곳에서 재배하는 농작물과 주변 식물들 호숫가 수생생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그림그리기나 글쓰기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대청호의 중요성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를 알리고 홍보한다면 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다. 이런 활동 모두를 마을에서 주관하면 좋을 것이다.

삼정동 비점오염 저감 생태공원

봄은 이미 얼음장 밑으로 또는 버들강아지 뿌리로 이미 와 있었다. 아직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데크길을 벗어나 산길을 걷기도 하고 도로로 나가 아스팔트길을 걷기도 하며 대청호반의 물길을 보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다. 아늑한 산길로 접어들면 작은 웅덩이가 있고 가랑잎 들추고 보면 도룡뇽 알이 가득하다. 발길 없는 조용한 습지엔 이렇게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등줄기엔 기분 좋은 땀이 상큼하게 흐르고 코끝엔 매콤한 봄 향기가 남는다. 그렇게 갈전동을 지나 걷다보니 어느새 이현동까지 왔다. 가까이 온 봄을 맞으며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만들어 놓은 데크길도 좋지만 소홀하게 관리 할 바에는 흙길을 맘껏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꼭 데크길을 만들어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흙길을 밟으며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망가진 데크길을 보는 마음도 좋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방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현동 생태습지에는 억새를 품종 개량한 거대 억새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태습지엔 여러 식물도 심어보고 그 생장 모습과 조건을 연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억새를 개량한 바이오억새도 있다고 한다. 잘 만들어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오백리길 그 중에 한 구간을 오늘 걸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같이 모르는 것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느끼며 걷는 다는 것이 참 중요하단 생각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청호 그 속살을 가만히 헤집어 보는 즐거움 그리고 왜 이곳을 아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은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모순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요즘시대이다. 이런 때에 자연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행복감으로 하루를 마감 한다. 자연 속에 들어가 내가 말을 줄이면 자연은 내게 말을 걸어온다. 무수한 자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시간을 오롯이 그곳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청호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물이 주는 고마움을 미쳐 깨닫지 못했던 때를 생각 하면 참 많이도 부끄럽다. 이제 그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작은 책임감이 생겼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도롱뇽 알

오늘의 걷기를 마감하며 몇 가지 생각을 남겨 보고져 한다.

첫째, 마을의 주민활동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한다.

마을을 지나는 데크길을 마을 단위로 구간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주변 정화활동도 겸하게 하였으면 한다. 이는 정체된 마을에 활력이 넘치게 할 수 있다.

어느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하도록 해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둘째, 마을에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특산품을 개발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여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였으면 한다. 그것은 생태습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마을 마다 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대청호를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할 이유를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마을에는 비교적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이 거주 하실 것이다. 이분들과 함께 마을의 역사와 자랑거리를 정리하고 마을 활동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준다면 자연스러운 마을 홍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마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이런 마을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공되어 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동 생태습지

글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보은 회인천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운동

대청호는 1980년 담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녹조 등 수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과 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1년 대청호는 전국적으로 초유의 조류대발생이 있었고, 이는 민관이 함께 모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대청호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정화활동 등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고, 중기에는 대청호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대청호생활공동체운동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청호유역하천센터와 하천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금강 상류의 하천감시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9개의 하천에서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대청호에 직유입되고 있는 하천은 옥천군 서화천, 안남천, 안내천, 보은군 회인천, 가산천, 청주시 묘암천, 등동천, 품곡천(주민들은 노현천이라고 부름), 대전시 주원천 등 9개의 하천이다. 여기에 금강본류로 유입되는 보청천의 수질관리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종합적 유역관리가 대청호보전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하천 유역에서 주민 정화활동, 환경교육, 가축분뇨 및 하수 관리 방안 마련, 민관협력을 위한 회의 체계 마련 등 '수질개선을 위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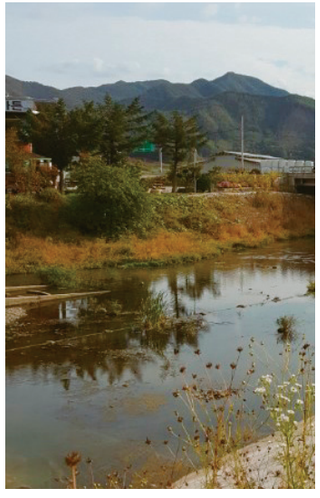
대청호 직유입 하천이 없는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금강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중에서 오염부하가 많은 하천을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의 소유역 거버넌스 운동을 통해 지역의 수질개선운동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다.

2015년부터 옥천 서화천 유역에서는 이러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활동은 2017년 환경부의 '소옥천 수질개선종합대책'의 모델이 되었고, 퇴비나눔센터와 환경관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청호 회남수역(충북 보은)에 내려진 조류경보가 한 달 만에 모든 수역으로 확대되었고, 회남수역의 남조류는 20만cells/㎖을 넘어섰다. 이는 조류대발생이 있었던 200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대청호의 녹조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유역의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역·중유역·대권역으로 이어지는 유역관리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2018년부터는 '소옥천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퇴비나눔센터가 운영되면서 서화천 유역의 방치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와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었다. 서화천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보은 회인천 유역에서도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마을 주민들과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대청호소식 1,2월호부터는 직유입 하천유역에서 소유역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대청호 직유입 하천과 소유역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싣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옥천 안남천에 이어서 보은 회인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은의 회인천 개요

회인천은 금강수계에 속하며, 금강의 제1지류이다. 국가하천과 지방2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가하천은 유로연장 29㎞, 하천연장 0.01㎞, 유역면적은 56.14㎢, 지방2급 하천은 유로연장 13.7㎞, 하천연장 11.62㎞, 유역면적 52.52㎢이다. 보은군 회인면 갈티리에서 지방2급 하천이 시작되며 회인면 신대리 신대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어 회남면에서 대청호로 흘러든다.

금강 지류로서는 유일하게 1992~1994년 동안 '하천휴식년제'에 의해 보호되었고, 회인천 하류인 대청호 회남수역에는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수초섬이 2,500㎡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맑은 회인천을 만들기 위해

회인천은 회인면부터 회남면까지 특히 회인면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따라서 주변에 마을과 농경지, 축사 등이 위치해 있다.

가장 많은 인구와 생활시설이 밀집된 곳은 면사무소 등이 위치한 중앙리이다. 그렇지만 회인천이 회인면을 가로지르고 거의 모든 마을들과 생활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앙리를 비롯한 모든 마을이 회인천을 관리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

회인면의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소 1,400여 마리, 돼지 300여 마리이고 축사 및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회인천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회인천 유역의 방치 가축분뇨 실태조사에 의하면 54곳의 가축분뇨가 방치 축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국가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의 오염부하량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보은군 회인면의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68.6, T-N(총질소) 104.7, T-P(총인) 45.3이다. 또한 T-P(총인) 배출부하량에서 토지계는 3.7, 축산계 41, 생활계 0.4였다.(단위: kg/일)

회인천 수계에는 회인천에 영향을 주는 폐광산이 있다. 부국광산, 보은광산 등 4개의 폐광산인데 2017년에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중금속 토양오염과 일부의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에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조치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공사현장에서 황철석이 회인천으로 다량 유입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타이어 분진 등이 우수를 통해 회인천에 유입되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회인면에서의 소유역 거버넌스의 경험

2019년에 회인천 유역에서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을 실험하면서 방치 가축분뇨를 조사하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자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회인천 유역의 부수리와 송평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총인배출부하량과 방치축분이 많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서 지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을 검토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수질개선의 성과를 만드는 활동이 가능했다.

1.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동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인면이장단협의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회인천 유역의 마을 이장 등이 민간영역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 보은군 환경위생과,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회인면 등의 행정기관이 함께 하였고, 환경전문가 등이 포진하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과 해정, 전문가의 수질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었고, 지역에 필요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졌다.

2. 방치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비가림 설치

2018년에 이어 2019년 4월에 추진된 회인천 유역 방치 가축분뇨 전수조사에서는 총 54곳이 조사되었다. 비가림이 없는 28곳에 대한 방치축분에 대해 안전조치와 팻말이 성치되어 지역주민

들의 자발적인 방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2019년 9월에 추진된 2차 방치 가축분뇨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31개소에 신규로 7개소가 확인되었고 비가림 설치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3. 도랑살리기 선진지 견학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운영위원들과 회인천 유역주민 41명이 함께 다녀온 아산시 원공술마을과 죽산1리의 도랑살리기 사례 견학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비슷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도랑살리기 실천사례를 보고 배우면서 회인천에서도 도랑살리기를 통해 마을이 깨끗하고 맑게 보전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4. 도랑살리기 실천 활동 및 환경교육

부수1리, 부수2리, 송평1리, 송평2리, 고석리에서 진행된 총 6회의 도랑살리기 실천활동을 통해 연인원 235명이 총 10.5톤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여름철의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사례로 지역주민들은 마을별로 단합도 도모하고 하천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진행된 주민환경교육에서는 친환경 비누 만들기, 쓰레기분리수거, 기후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었다.

5. 비가림 분리수거함 설치

방치 가축분뇨 수거예산을 변경하여 송평1리, 부수2리, 고석리 마을에 비가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분리수거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리수거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가림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마을주민들은 분리수거체계가 부족한 군단위 시골마을에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해져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지속적인 설치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진되고,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천관리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며 '우리마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키자'는 실천의지와 활력이 상승하였다. 대청호 녹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회인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비가림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방치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성과도 만들어졌다.

주민과 함께 하는 회인천 소유역 거버넌스의 전망과 과제

2019년 회인천거버넌스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첫발을 내딛으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으면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유역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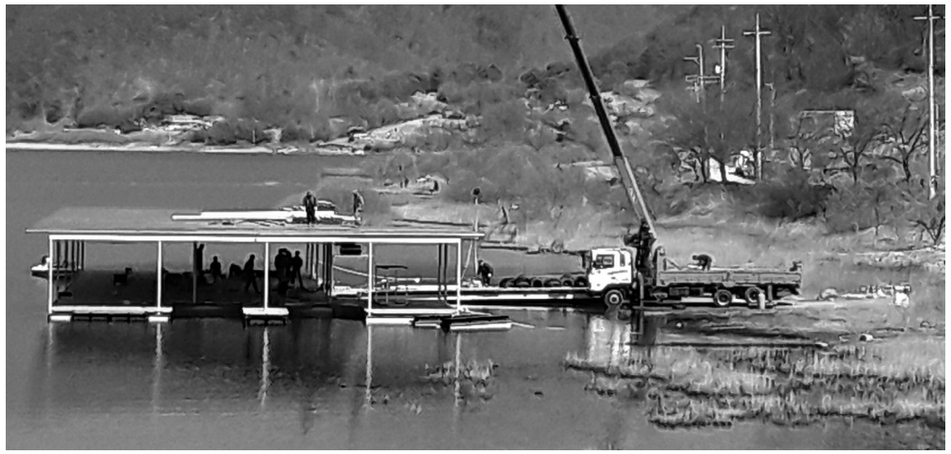
앞으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마을단위나 회인천에서 주민들이 직접 하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천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해지도록 발전해야 한다. 지역민이 회인천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회인천의 수질오염을 막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회인천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청호의 오염을 방지하는 소유역 관리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가축분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비가라미 설치 등의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 자원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방치가축분뇨의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가축분뇨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가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활동은 예산의 제약으로 모든 마을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의 예산을 활용해 설치하고 주민실천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회인천 유역을 위해 회인천유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역사·문화·환경·농업·경제 등을 망라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대청호 대규모 수상레저업 점용허가 1년,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8년 12월, 옥천군은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면적의 하천점용을 허가하였다. 당시 옥천군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0,000㎡의 면적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고, 사전에 수면관리자인 K-water 대청지사와 협의하여 수면이용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하였다. 2018년 12월에 최종 허가 결정을 하였고,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그리하여 사상 처음으로 대청호에서 수상레저업이 허가되었다.

지난해 대규모 수상레저업 점용허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각계에서 대청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또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하였다.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20여 곳의 언론에 이 문제가 실리기도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천감시조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1년간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대청호 대규모 수상레저업 점용허가의 문제점

① 대청호 수질오염 우려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다. 환경부 고시인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1권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하다.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어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1권역과 인접한 구역이어서 문제가 있다. 대청호 수면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대청호는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유입 문제가 매년 부각되고 있다. 다른 어떤 댐들보다도 녹조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왔고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옥천의 대청호유역에서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옥천의 대청호 곳곳에서는 선박계류시설(바지선)이 설치되고 동호회 활동, 마을 선착장 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수상레저 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바지선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제트스키, 동력보트와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동원하여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오히려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던 것이다.

② 수생태계 파괴 우려

대청호의 어민들은 물고기 산란장 주변으로 강력한 물살을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오가는 보트, 수상스키 등으로 인해서 쏘가리, 동자개 등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물속에서는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이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물 위에서는 사람으로 인해 씨가 말라가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트의 모터가 물의 순환을 도와서 녹조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때 찬성론을 뒷받침하던 일부 학자들도 배 모터의 스크류가 수질을 좋게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근거가 없는 낭설로 본다.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기름유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 이미 대청호는 수많은 낚시객과 행락객들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③ 수상레저 점용허가 확대 우려

일단 허가 사례가 만들어진 만큼 수상레저 영업행위를 은밀하게 해 온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역을 나누어 수상레저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허가사례는 대청호 수상레저 사업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해 이미 2곳에 더 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파악되었다. 하지만 점용허가에 대한 언론보도 등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줄어든다면 언제 다시 점용허가 시도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연구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난해 8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해본 전문가들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비누 등 목욕제품 사용으로 인해 대청호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샤워실과 관련하여 우려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레저 시설 및 보트의 세척으로 인한 오염, 이용 행락객들의 오염행위 가능성 등도 제기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및 이용객에게 환경홍보활동을 할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또한 위치가 특별대책지역 2권역인 만큼 이러한 구역에서는 확실한 관리대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상레저업을 허가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 지역에서의 레저산업의 환경수용력, 구체적인 레저시설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저감대책 등을 철저하기 조사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또한 규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하천감시조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해왔다.

사실 지난해 봄 대규모 계류장을 제작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을 무단 점용한 채 많은 양의 오일스테인을 가져다 놓고 대규모 계류장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10일 넘게 위법행위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방치하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류시설 내 샤워장 설치도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7월 수상레저시설을 찾아가 대표를 면담한 결과 대표는 샤워장에서 비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를 시설이용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샤워장이 문제가 되다보니 2019년 하반기에 현장을 조사한 하천감시단에 의하면 샤워장을 폐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샤워장 이용 등 불편으로 인해 샤워장을 없애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폐쇄했는지는 관리감독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점용허가된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 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는 허가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수상레저 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모든 관계기관이 서로 미루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잘 대처해야 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또한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지켜보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멸종위기 독수리, 대전 대청호 상공서 첫 발견

대전시는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생태조사 중 동구 직동 상공에서 독수리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독수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수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주로 몽골에서 번식하며 겨울철 강원 철원군과 경기 파주시 등에서 활동하는 철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현재까지 대전에서 도시생태조사를 통해 독수리, 흰꼬리수리, 큰고니, 흰목물떼새, 참매, 새매 등 10종의 법정보호 조류 서식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생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전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을 자연생태 복원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자연생태 복원정책을 통해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0. 2. 11. 권순재 기자

옥천군, 향수호수길에 날개를 달다

옥천군은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0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1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 향수호수길 일원에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생태정원 및 데크시설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억 원(도비 17억 원, 군비 27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낙석위험으로 미개방 되었던 황룡암~주막마을 구간(1.5㎞)에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주막마을 주변에 주차장 70면, 화장실, 생태정원 등 편의시설이 대폭 추가된다.

미개방 구간(황룡암~주막마을)은 탁 트인 대청호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옥천읍 수북리 선사공원부터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에 이르는 향수호수길 전 구간(11.2㎞)이 산책코스로 이어지게 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향수호수길은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옥천9경중 제8경으로 선정된 명소이다"며 "40년간 지속된 대청댐 상류 낙후 피해지역인 안내면, 동이면 지역이 향수호수길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확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오는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2021년까지 향수호수길 기반시설조성 준공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강일보】 2020. 2. 17. 전병준 기자

'갈수기에 웬 농로 침수'…발 묶인 대청호 인근 옥천 주민들

90m 구간 물에 잠겨, 군북면 "공사 어려울 땐 새 농로 검토"

대청호와 맞닿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농로가 2개월 가까이 침수돼 농번기를 앞두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북면 추소리의 농로 90m 구간 위로 물이 차 있다. 깊은 곳은 수심 80㎝가량 된다.

이 농로는 작년 7~9월에도 침수됐던 곳이다. 대청댐 수위가 76m 이상 오르면 대청호 상류인 이 농로는 물에 잠긴다. 작년 이맘때의 대청댐 수위는 74.46m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날 현재 76.05m까지 높아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농로를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농로에 물이 차면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승용차 이용은 더 어렵다.

유제도 추소리 이장은 "지금은 아쉬운 대로 건너갈 수 있지만 물이 조금만 더 차도 산을 넘어가거나 배를 타고 건너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군북면에 농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농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땅이다. 군북면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청댐 수위를 낮춰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면 관계자는 "농로를 높게 쌓는 방안을 군과 협의 중"이라며 "대청댐 물을 빼야 공사를 할 수 있고 점용 허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북면은 농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인근 국유림 쪽으로 농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2020. 3. 13. 심규석 기자

대전시, 대청호 3대하천 등서 생태교란 어종·식물 집중 퇴치

대전시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외래생물로부터 토종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이다.

퇴치 어류에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2종이 있고 식물은 가시박, 돼지풀, 환삼덩굴 등 15종이 지정돼 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교란어종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의 교란식물이 대청호 및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 전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란어종은 어린 물고기, 수생생물을 대량 섭취해 토종 어류 감소 및 고유 수생태계 교란을 초래하며 교란식물은 토착식물 및 수목의 성장을 방해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천관리사업소, 자치구, 민간단체와 연계해 모두 27개 지점에서 생태계교란식물 12만7290㎡를 제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교란식물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단체와 연계해 3대하천 등의 교란어종도 서식환경과 효과적인 관리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거 및 퇴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급속한 번식력으로 토종생물 서식을 방해하고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속적인 제거로 고유생태계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20. 3. 16. 이상선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 벚꽃축제' 취소

대전 동구가 '대청호 벚꽃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이 축제는 당초 내달 10~12일 개최 예정이었다.

동구는 그동안 연기냐, 취소냐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른 축제도 아니고 벚꽃축제인데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서다.

하지만 축제는 열지 않더라도 상춘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확보된 3억여원 예산 중 일부를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개화 기간 중 직원들이 나가 방역활동 등을 벌여 집단감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벚꽃 구경 오는 사람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세를 볼 때 4월 개최는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축제를 안열더라도 벚꽃 구경을 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내달 3~5일로 예정돼 있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에 대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동구와 달리 벚꽃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열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가을 개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구와 마찬가지로 대청호 벚꽃을 찾는 이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달 17~18일로 예정됐던 제14회 동춘당문화제에 대해서는 6월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문화제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 열리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달 말께면 취소·연기가 결정될 것 같다"며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주민 안전과 손님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충청신문】 2020. 3. 9. 황천규 기자

[신팔도유람] 대전 대청호 오백리길

대청호오백리길에서 바라본 대청호

비상등을 켠 채 이대로 도롯가에 멈춰 서고 싶은 날이 있다. 삶이 주는 막막함이다. 질퍽한 흙길을 지나 땅 끝에 닿았다. 미혹과 번뇌를 벗어난 깨달음의 피안(彼岸)은 물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

는 듯 했다. 미동조차 없는 거대한 호수에 오리 한마리가 떠다닌다. 그 움직임이 작은 파동으로 발끝에 전해졌다. '괜찮다.' 나무숲에 부는 바람이 말해주었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름 모를 빛깔고운 새가 지저귄다.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빛이 눈부시다. '너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물과 바람과 햇볕이 건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대청호오백리길에서는 누구나 오롯이 혼자였으나 결코 결핍하진 않았다.

드라마 '슬픈연가' 촬영지

대청호 오백리길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지를 걸치고 있는 인공호수다. 오른쪽으로 청주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왼쪽으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을 가르는 대청댐이 5년여 공사 끝에 1980년 12월 들어서면서 길이만 80㎞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가두고 있는 물은 14억 9000만t으로 국내 최대인 소양호, 충주호 다음이다.

대청호는 대전·충청권의 젖줄이자 지역주민들의 쉼터에서 10년 전 사람과 산과 물이 만나는 녹색생태관광사업의 하나로 '대청호오백리길'이 조성돼 한해 2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2011년 8월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발행한 소식지를 보면 대청호오백리길의 역사적 유래가 나온다.

'대전·충청권 지역 대청호 주변 자연부락과 소하천을 모두 포함하는 200㎞ 도보 길로 등산로, 산성길, 임도, 옛길 등을 포함하고 있다. 5개 지자체 도보길인 대전 대청호로하스길, 대청호반길, 옥천 향수길, 보은길, 청남대 사색길 등을 포함하고 대청호 전체 상징성과 대전·충청권에 걸쳐 있는 대청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대청호오백리길이라 했다.'

영화 '7년의밤'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

21개 테마 길로 이뤄진 대청호오백리길의 대전 구간은 두메마을길(1구간), 찬샘마을길(2구간), 호반열녀길(3구간), 호반낭만길(4구간), 백골산성 낭만길(5구간), 대청로하스길(21구간) 등 6개 구간이다. 6·20구간은 충북지역이다. 이중에서도 호반낭만길은 2005년 권상우·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슬픈연가' 이후 '트루픽션', '7년의밤', '창궐' 등 여러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마산동삼거리-드라마촬영지-자연생태관-추동취수탑-연꽃마을-엉고개-신상교로 이어진다. 천천히 12.5㎞ 거리를 걸으면 6시간가량 걸린다.

대청호 물길을 옆에 낀 데크로드를 따라 걷다 보면 건너편 야트막한 산들이 물위로 비쳐 자연의 데칼코마니가 성큼 다가와 있다. 한가로이 노니는 오리와 마주치기도 한다. 데크로드 끄트머리에 다다르면 슬픈연가 촬영지 안내판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흙길이다. 막힘 없는 길에서 구불구불하고 물기 젖은 길로의 진입이다. 그 길 끝은 한걸음 내디디면 깊은 물길로 이어지는 가지 못할 길이었다. 바다가 없는 내륙의 땅 끝, 물의 길 초입에서 40여 년 전 댐 건설과 함께 수몰된 압실마을이 떠올랐다. 청원 문의면 문덕리 대표 부락으로 마한시대부터 대물림하며 살아왔고 우리나라 남방계 취락과 북방계 중부지방의 건축양식이 잘 어우러진 곳이었다고 전해진다. 댐 조성 당시 4075가구, 2만 6000여 명의 원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고향을 떠나야 했다. 70m 깊은 물 밑에 이들의 흔적이 아득하게 잠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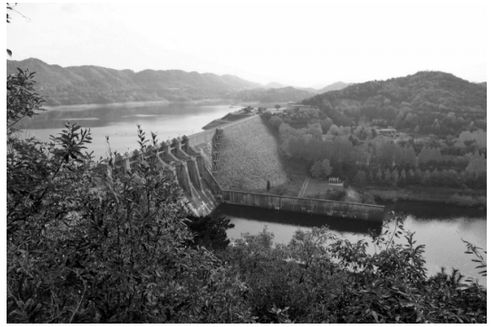
연꽃마을 전망좋은 곳

역사를 품은 테마길

두메마을길(1구간)은 대청댐물문화관-숫고개-미호동산성-비상여수로-삼정마을-이현동 거대억새밭으로 연결된다. 2012년 12월 준공된 비상여수로댐 인근에는 로하스가족공원워터캠핑장이 있다. 이씨·민씨·강씨가 살아 삼정동이라 불리는 마을과 조선후기 고종황제의 승지를 지낸 민후식이 처음 지은 '민평기 가옥'도 이 구간의 볼거리다. 찬샘마을길(2구간)은 무섭고 슬픈 역사의 길이다. 계족산성에서 북동쪽으로 6㎞ 지점에 있는 성치산 정상을 둘러 쌓은 성치산성(대전시기념물29호)을 내려오면 윗피골(성황당고개)에 도착한다. 마을 뒷산에 석축 성곽인 노고산성(대전시기념물19호)이 있고 후삼국시대 후백제 견훤의 군사와 신라가 이곳에서 큰 싸움을 벌여 그 피가 내를 이뤄 내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피골이다. 이후 직동에 이어 찬샘마을로 바뀌었다. 대청호 주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농촌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체험학습 특화마을로 변화하고 있다.

전망쉼터

호반열녀길(3구간)에서는 관동묘려(寬洞墓廬)를 빼놓을 수 없다. 열부 정려를 받은 쌍청당 송유(1389-1446년)의 어머니 유씨부인이 1452년(문종2년) 82세로 세상을 등지자 장례를 지내고 옆에 건축한 재실(齋室)이다. 대청에 '관동묘려'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백골산성 낭만길(5구간)은 신상교-강살봉-백골산성-방축골길-와정삼거리 13㎞다. 마산동산성 동남쪽 대청호 건너편에 400m 둘레로 지어진 테뫼식 산성이 백골산성이다. 석축 성벽이 무너져 원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래로 물이 갈라놓아 섬이 된 대청호의 산하를 탁 트인 시야로 조망할 수 있다. 청원 문의대교에서 시작하는 대청로하스길(21구간)은 대청호물문화관에서 길을 접는다. 2004년 3월 대전에 내린 100년 만의 폭설로 부러지고 쓰러진 구룡산 소나무를 다듬어 장승으로 만든 구룡산장승공원이 주요 코스다. 대청로하스길과 이어지는 수변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대청문화전시관과 대청공원이 나온다.



대청댐 전경

【대전일보】 2020. 3. 4. 문승현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대전충남생명의숲

2020년 대전충남생명의숲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2월 6일(목) 오후 7시 대전NGO센터에서 105명의 회원 및 시민들이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대전충남생명의숲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그간의 안부를 묻는 회원들간의 대화로 인해 총회장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총회 시작과 동시에 2019년 활동을 돌아보는 활동영상 그리고 2018년부터 핵심 프로그램으로 밀고 있는 그린짐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고 회원소개 이후 본격적인 총회의 시작으로 2019년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의 건과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회원들의 동의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임원선출에 대한 안건심의도 진행되었고, 지난 3년간 헌신하신 김종원 대표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나 공동대표로 임명되고, 이준우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안건이 끝나고 10년 회원상, 20년회원상, 공로상 등 시상을 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YMCA

대전YMCA 제72차 정기총회 개최

제72차 대전YMCA(이사장 조광휘) 정기총회가 지난 6일 오후 7시 대전YMCA 5층 강당에서 총회원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1부 총회를 여는 예배, 2부 정기총회, 3부 시상식 및 회원의 밤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총회를 여는 예배는 선교위원회 위원인 박민수 목사의 인도로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특송하고, 선교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목사가 '영적계승의 역사'라는 주제로 설교해 총회 시작 전 회원들이 다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조광휘 이사장이 총회 의장으로서 성원 보고를 받고 개회를 선언했다. 의장의 총회 사와회순 채택에 이어 김종남 사무총장이 전 회의록 낭독 후 회무 처리를 시작했다. 감사보고,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안), 2019년도 사업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받고, 총회원들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이사 선출에서는 강대웅 이사((주)서해냉동 대표), 김흥수 이사(한국YMCA연맹 이사장), 이규례 이사(아해뜰 어린이집 원장), 이선용 이사(메이플베어 어학원장, 서구의원), 조광휘 이사((주)카프코 대표)가 총회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제73차 전형위원으로는 신수원 회원, 이성훅 회원, 김종필 회원이 총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됐다.

3부 시상식에서는 공로패와 평생회원패를 전달했다. 먼저 지난 한해 대전YMCA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생활체육위원회 박찬룡 부회장, 선교위원회 김종필 위원, 평화통일위원회 오은종 위원, 평화축구단 여민주 총무, 와이즈멘 대전지방 조은클럽 김진철 회장, 교육위원회 황선남 위원장, 청소년장학회 이수옥 부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 대전YMCA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오종탁, 양창준, 김용성 회원에게 평생회원패가 전달됐다. 평생회원들은 앞으로도 대전Y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회원의 밤에서는 대전YMCA 회원들의 2020년 응원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고, 푸짐한 경품 추첨을 통해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2020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지난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7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제28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한해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과 회원님들의 의미있는 물건을 나누는 공유장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회원님들과 환경언론인상을 시상하였다고 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 멋진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2020년 기후위기 회원 비상선언으로 시작! 대전충남녹색연합 23차 정기총회

지난 2월 13일 오후7시,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23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10년 회원인 한경이 회원이 운영하는 행복한 밥상에서 지구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맛있는 채식 식단을 준비해주셨고, 사무처에서는 녹색실천을 위한 친환경대나무칫솔세트를 준비 했습니다. 각 테이블에 작은 화분, 올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녹색카드와 포토존 등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회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정기총회 첫 시작은 녹색인수칙 낭독 대신, 2020년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기후위기 비상 1,700명 회원 선언문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단체 오랜 청소년회원으로 월평공원 신나는 자연학교를 비롯해 녹색 활동에 참여해온 신다솜, 신벼리 청소년 회원이 선언문 낭독을 했고, 지금당장 행동하라 ACT NOW! 그린카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녹색인상은 매년 정기총회 자리에서 녹색운동의 모범이 되고, 지역생태환경을 위해 기여해주신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3곳/명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원자 10년 회원, 20년 회원 감사패와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갑천친수구역이 생태적으로 조성하는데 행정으로, 공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대전광역시 김준열 건설관리본부장과 백명흠 전 대전도시공사 이사, 2019년 녹색연합 에너지전환 활동인 대덕에너지카페와 주민 사업 등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 대덕구청 이학용 팀장, 천현수막 제작을 비롯해 일회용품 쓰지 않는 생활, 채식 등 존재로 녹색실천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녹색연합 회원 송순옥, 언론을 통해 월평공원 개발문제를 지역사회에 심층적으로 알려내신 임효인 기자, 마지막으로 2월말 퇴사하는 시민참여국 고지현 활동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 14차 온라인 회원총회

지난 2월 20일(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을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총회였기에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총회에는 온라인 투표 참여 154명, 서면위임 112명, 전화위임 24명으로 총 390명이 함께 하였고 2020년 사업계획과 특별결의문 등 총 4가지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중행동

지난 2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중행동을 계획하고 첫번째 주인 수요일(26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청주시내 주요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거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1인 시위는 도종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 SK하이닉스 앞, 공단입구, 분평사거리, 청주시청 등을 포함 14곳에서 진행이 되었고, 환경부 앞에서도 같은 시간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응원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 동구, 대청호 오백리길 정화활동

대전 동구는 3월 14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대청호에서 다가오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하기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비활동은 황인호 동구청장과 환경관리요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호 오백리길 4, 5코스 등 대청호 수변 주요 산책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로 집안에만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자 대청호를 찾은 주민들께서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환경정비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옥천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랑나눔'

K-water 기술계획처(처장 황영진)은 봄을 맞이해 18일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공경배)에 사랑나눔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K-water 기술계획처는 이번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등 필요한 지원을 했다.

또한, 기술계획처의 직원들은 정성의 마음으로 매달 모은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일손봉사 및 재능기부 봉사 등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경배 센터장은 "옥천군 다문화 가정을 위해 후원해주신 K-water 기술계획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ater 기술계획처 황영진 처장은 "일회성 물품기탁을 넘어 지역사회에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옥천군, 3천만원 투입해 침수된 대청호 옆 농로 정비사업 추진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 농로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을 배정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대청호 수위가 76m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달 군북면 추소리의 농로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인근 야산을 넘어 집과 농경지를 오가야 했다.

옥천군은 3천만원의 긴급 예산을 군북면에 배정, 침수된 농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조처했다.

군북면은 침수된 농로 90m 구간에 자연석 쌓기 및 흙 다짐 공사를 추진, 5월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협의를 위한 용역도 발주했다. 수자원공사도 "주민 불편사항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옥천군은 전했다.

옥천군 "영농부산물 군청이 가져갑니다"

충북 옥천군은 영농부산물로 인한 화재발생을 차단하기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불예방 홍보와 감시원 등을 통한 계도에도 음성적 소각으로 화재가 빈번하자 군이 마련한 특단의 조치다.

옥천지역에선 올해에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하다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군북면에서 80대 할머니가 소각을 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이번 대책은 농가 및 마을에서 부산물을 수거해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에 모아두면 군과 계약한 업체가 일정별로 수거해 일괄 파쇄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파쇄가 되는 영농부산물은 깻대, 옥수수대, 고춧대 등 밭작물은 물론 묘목을 비롯한 가지치기 결과물 등 기존 농가에서 소각하던 것들이다.

군은 현재 개인 농가와 마을별 희망 일정, 파쇄량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농가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파쇄량과 희망 일정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감독하에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라고 계도했지만 개인적으로 태우는 일이 많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동군

하천정비사업 본격 추진

영동군은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1개 국가하천과 21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각각 1억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하도준설, 수목제거, 호안정비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의 위험 원천차단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군민불편 해소와 인명과 재산 보호에도 힘쓴다.

보은군

친환경 미생물 본격 공급

충북 보은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이달부터 농업인에게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친환경축산관리실과 과수 GAP유용미생물실을 통합해 단일균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 미생물 공급을 일원화했다.

올해부터는 고농도의 미생물을 생산해 5리터 비닐 포장 상태로 공급한다.

그동안 통을 가지고 와서 공급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줘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등 미생물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을 활용하면 작물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예방,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 개선으로 연작장해 경감 등의 효과가 있고, 축산 농가에는 악취 저감과 퇴비 부숙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며 "미생물은 주기적으로 활용해야 효과가 크니 되도록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